

“가자지구, 즉각·무조건적 휴전해야” 유엔 결의안 통과

미국, 반대표...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지속에 사상자 속출 당국, 하루새 사망자 어린이 등 33명...인도적 구호단체도 공격

유엔 총회가 1년2개월 넘게 살육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결의안 채택은 찬성 133, 반대 9, 기권 13으로 이뤄졌다.

강제력이 없는 이번 결의안에는 '인질 전원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자지구 주민들, 특히 북부 주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결의안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런 방안들이 책임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기존 틀을 이용하거나 과거 경험에 입각해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의 임무를 이스라엘이

존중하고 이 기구의 활동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별도 결의안도 찬성 133, 반대 9, 기권 11로 통과됐다.

이스라엘은 UNRWA가 테러활동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 28일부터 이 기구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지난달 중순에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결의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휴전을 하더라도 인질 석방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총회 결의안과 유사한 문구를 담은 결의안이 지난달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를 통과되지 못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는 통과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이번도 이런



음식 받기 위해 줄 선 주민들 이스라엘군의 지속인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주민들이 무료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AP=연합뉴스

경우다. 결의안 표결 전에는 유엔 회원국 대표 수석명이 팔레스타인 측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유엔 안보리 슬로베니아 대표인 사무엘 주보가르는 “가자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괴됐다”며 행동하지 않는 데에 대해 역사가 가장 가혹한 비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침 가오우아오우이 주(駐)유엔 알제리 부대사는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보고도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태도의

대가는 매우 무거우며, 내일이면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와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 다니 다논은 “오늘 총회에 제시된 결의안은 논리가 전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우드 주(駐)유엔대표부 미국 부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수치스럽고 그릇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결의안이 통과된 후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 리아드 만수르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휴전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 2건이 통과된 지난 11일에도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들 수십명이 숨졌다.

팔레스타인 보건부 당국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33명이며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12일에도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인도적 구호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겨냥해 폭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연합뉴스

‘조선인 136명 수몰’ 해저탄광 유골 발굴조사 재추진

도시민단체, 내년 1월 말부터...이번엔 발견 가능성

일제강점기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목숨을 잃은 일본 혼수 서부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내 유골 발굴을 위한 일본 시민단체의 발굴조사가 내년 1월말 재추진된다.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모임)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발굴 조사는 내년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사흘간 벌일 예정이다.

모임은 조사 비용 마련을 위해 600만엔(약 5천700만원)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단체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천200만엔을 마련해 지난 10월29-30일 유명 다이버이자 수중 탐험가인 이사자 요시타카(伊左治佳孝) 씨의 협력을 얻어 1차 발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사자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번에는 경도 입구에서 100-200m 사이까

지 갔다가 준비한 안전 로프가 모자라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당시 도달한 지점까지는 로프가 이미 설치돼 있어 2차 조사 때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2차 발굴 조사는 300-400m까지 수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도 내 가장 낮은 곳(수심 30m) 주변에서 유골 발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이다.

이사자 씨는 “이번에는 유골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모임은 2차 발굴 조사 기간인 2월1일 한국인 유족 등도 참석할 가운데 조세이(長生) 탄광 참사 88주년 희생자 추도식도 열 계획이다.

이 모임의 유에다 케이시 사무국장 은 지난 10월 발굴 조사 전 개최한 추도 집회에는 유족 14명 등 한국에서 30여명이 왔으며 “현장을 보고싶다고 하는 한국인들이 갈수록 늘어 이번에는 100여명이 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 지하 경도에서 1942년 2월3일 발생했다. 경도 누수로 시작된 당시 참사로 조선인 136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까지도 유골 수습과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사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답변에서도 “유골의 매몰 위치와 깊이 등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유골 발굴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오쓰바키 유코 시민당 의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대처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죽음의 바다...지중해 건너던 이주민 44명 실종

사흘간 바다 표류 11세 소녀 생존

시에라리온 출신의 11세 소녀(사진)가 지중해에서 이주민들을 태운 보트가 침몰한 후 차가운 바다에서 사흘간 홀로 버틴 끝에 구조됐다.

지난11일(현지시간)외신에 따르면 독일 비영리단체(NGO) ‘컴퍼스 콜렉티브’는 이날 새벽 3시20분께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소녀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소녀는 구명조끼를 입고 타이어 튜브 2개에 의지한 채 바다에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도착한 소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소녀는 구조대원들에게 자신이 탔던 보트가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스텝스에서 출발해 45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폭풍에 휩쓸려 침몰했다고 말했다.

컴퍼스 콜렉티브는 “이 소녀가 이번 조난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나머지 44명은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소녀는 구조 전까지 사흘간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고, 자체온증 상태였으나 다행히 의식은 명료하고 신체 반응도 좋다고 구조에 참여한 의사 마우로 마리노가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에 전했다. /연합뉴스

야생 코끼리 공격에 관광객 사망

태국 북부 국립공원에서 야생 코끼리 공격에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로에이주 푸끄라 등 국립공원에서 40대 태국 여성이 캠핑장에서 인근 펜팔마이 폭포로 이어지는 트레일 코스를 따라 걸던 중 먹이를 찾아 나선 코끼리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